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4737호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뉴스]
한은
코로나 재확산에
기준금리 동결
02

Economy

코스피 3286.22 (+21.41)
코스닥 1054.31 (+9.33)
금리(국고채 3년) 1.497 (+0.107)
환율(원·달러) 1141.50 (-7.00) 〈15일〉

m-커버스토리

미닝아웃족에 '찍히면 끝'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

'이유있는 불매' 못 막는다

가치소비 트렌드

가치·신념 중시 소비 증가
쿠팡이츠 '새우튀김 갑질' 에
남양유럽 '불가리스 사태' 등
소비자 불매에 매출 큰 타격

중구청 관계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 태극기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배너기를 설치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소비하는 '미닝아웃' 소비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덩달아 번지고 있다. 단 한번이라도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들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미리 제거하거나,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등 이미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미닝아웃에 피해를 입은 사례는 최근 쿠팡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논란', 판매 방식인 '아이템 위너' 등 다방면에 걸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며 성장세를 달리고 있었다. 올 1분기에만 쿠팡 이용자 수가 1604만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국내 인구의 30% 정도다. 하지만, 연이어 터진 악재에 이용자들은 등을 돌렸다. 모바일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쿠팡앱 일일활성화사용자수는871만313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직후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신속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앞서 4월에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연구 결과에 의구심을 품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연구부터 발표까지 '불가리스'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한 학술 행사라는 정황이 드러나자 남양유업은 고개를 숙였다.

불가리스 공장은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퇴 수순을 밟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적극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외면하고 있다"며 "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스닥 연중 최고치 마감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9.33포인트(0.89%) 오른 1054.31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21.41포인트(0.66%) 오른 3286.22,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0원 내린 1141.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삼성전자 "애플 게 섰거라" OS 개선으로 연동성 강화

구글과 공동 개발 '원 UI 워치'
'갤워치4·액티브4' 탑재 예정

삼성 갤럭시 북 시리즈.

삼성전자가 운영체제(OS) 개선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워치, 태블릿PC 간 연동성을 강화하며 갤럭시 생태계 구축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iOS라는 통합된 OS로 안정된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애플을 추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1에서 갤럭시 워치4, 갤럭시워치 액티브4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스마트워치 전용 OS '원 UI 워치(One UI Watch)'를 공개했다.

구글과 공동 개발 중인 '원 UI 워치'는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워치 액티브4에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OS 개발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앱 확장성을 대폭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 UI 워치는 구글과 공동으로 개발한 OS라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스마트폰 앱 스토어와의 연동성을 크게 강화했다. 갤럭시워치3까지 적용됐던 타이젠 OS는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이라고는 카톡 확인하기, 문자 확인하기, 전화 받기, 노래 재생, 유튜브 재생이 전부였다. 이는 애플워치에 비해 기본적인 기능만 가능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원 UI 워치가 적용되는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워치 액티브4부터는 구글 맵스와의 연동이 크게 강화되고 유튜브는 재생 목록까지도 워치 내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써드파티앱(각 OS제조사의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 설치를 통한 새로운 기능도 제공한다.

패트릭 쇼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CX실장은 "삼성전자는 모바일 혁신에 대한 오랜 전문성과 개방형 생태계 기반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스마트워치 경험과 갤럭시 생태계의 편리함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

'델타 변이' 폭증… 4차 유행 전국화 양상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1600명대
변이바이러스 중 70%가 '델타형'
백신 예약 차질에 물량 부족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다시1600명을 넘어서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주일간 전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5일째 10000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번져가는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00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규모이던 전일 1615명보다는 15명 줄었지만 여전히 1600명대를 유지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 이후 9일째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457명으로 전체 30% 가량을 차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유행과는 달리 4차 유행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확산세가 훨씬 빠른 델타 변이가 원인으로 꼽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536명 가운데 델타형은 374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확산세는 거세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은 여전히 10%대 수준에 머물러 우려가 커졌다. 이날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전체 30.8%,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친 사람은 전체 12%에 그친다.

50대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 역시 차질을 빚으며 백신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55~59세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예약은 그날 오후 예약 물량 소진을 이유로 갑작스레 중단됐다. 이후 이틀 만인 14일 예약이 재개됐지만 예약자들이 또 다시 몰려들며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10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백신 물량 부족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달 중 백신 800만회분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총 1000만회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말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 등 3500만회분, 9월에는 4200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백신별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버스티비 J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홍남기 직격… "80%에 25만원이나 전국민 20만원이나" /사진 뉴시스
▲ 55~59세 모더나 접종 대상자, 71.3% 예약 완료
▲ 홍남기 "신용카드 캐시백, 배달 앱 등 온라인 사용도 검토"
▲ 재난지원금 당정 충돌 고조, 대통령 정리 나서나… 靑 "국회의 시간 지켜보자"

▲ 송영길 '국힘 입당' 최재형 직격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사례" /사진 뉴시스
▲ 중국 2021년 2분기 GDP 7.9%↑…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